특 집

2002년도 아시아 · 태평양 주요국가 전자산업동향 (I)

Ⅰ. 아시아 · 태평양 주요국의 경제와 전자산업동향 및 전망

Ⅱ. 국별 전자산업 동향
- 한국 · 일본 · 대만

특집

Ⅰ.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경제와 전자산업 동향 및 전망

1. 경제 개요

1999년에 3.0%, 2000년에 4.0%로 세계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된 후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하향세로 접어들었고 또 여러 악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테러 공격이 있기 전에 예견했던 것보다 더 악화됐다. IMF는 세계경제전망에 관한 2001년 12월 보고서에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거의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하향 추세는 2002년에 대한 전망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특히 선진 경제국들 사이에서 2001년 말경 기대되었던 경기 활성화는 2002년 중반쯤까지는 대체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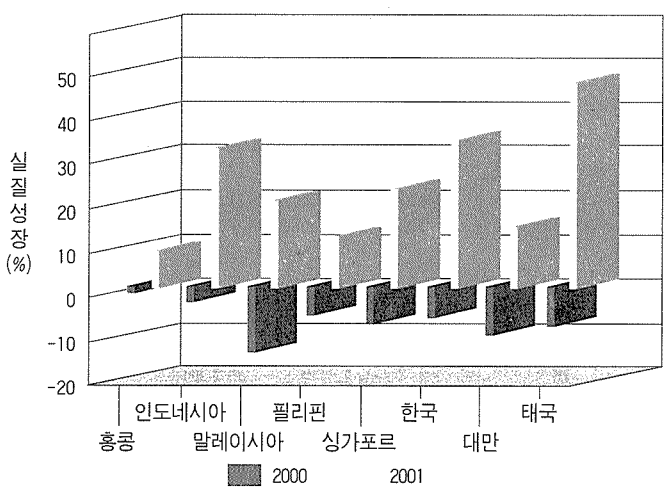
선진 경제국들은 2002년엔 겨우 0.8%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2001년의 1.1%라는 저조한 수치보다 더 낮은 것이다.

테러 공격 이후 경제 성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었고 거의 전례 없는 사건들이 최근 빈발하면서 성장을 예견하는 것이 아주 불확실해졌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전반적인 침체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일부 부문(이를 테면 IT)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경제는 최근 얼마 전까지 왕성한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현재는 경기 침체로 인해 GDP 성장이 2000년의 5.0%에서 2001년에는 1.0%로 떨어졌고, 2002년에는 0.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2002년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부에서는 2003년에도 여세를 몰아 3%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2000년의 일본경제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일본경제는 GDP가 1년 전 0.2%에서 1.7%로 성장했다.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급속한 악화는 취약한 국내 투자 및 소비지출과 결부되어 2001년에 GDP가 0.4%

아시아 국가의 시장 성장률 2000 & 2001



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기후퇴를 가져왔다.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한계를 보이면서 단기간 내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두워졌고 2002년에는 GDP성장이 1.0%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EU의 GDP성장은 3.2%였지만 2001년도에는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성장률은 여전히 상승세여서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독일경제는 한 해 동안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전망은 유가와 식료품가격의 인상과 기술과 통신부문에 대한 재평가로 악화되었고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 산업생산 선행지수와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와 사업에 대한 확신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그 결과, 2002년의 유로(Euro)지역의 GDP성장은 1.2%로 추정된다.

중국을 제외한 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실질 GDP가 1998년에 전례없이 하락한 후에 1999년에는 경기침체가 멈추었고 2000년에는 경제 회복세가 이어졌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 성장은 2000년도엔 6.5%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 지역의 수출이 타격을 입어 2001년도엔 급격히 하락했다. 2002년도의 성장은 초기의 성장 목표치보다 훨신 내려갈 전망이다. 홍콩, 싱가폴, 대만은 2002년도에 약 1% 정도만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며, 이에 비해 한국은 2%~3%로 보다 안정된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ASEAN경제의 성장은 단지 3% 미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 전자 산업 개요

2000년은 전자 산업이 호황을 누린 한해였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서유럽, 미국, 일본 등 32개 주요국가의 전자장비와 전자부품 시장의 규모는 1999년의 미화 1조 560억 달러보다 12.9%가 상승한 1조 1,930억 달러였다. 환율변동과 물가폭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14.3% 성장한 것이다.

이는 통신장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특히 IC와 콘덴서 부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이 부문이 급성장을 한 한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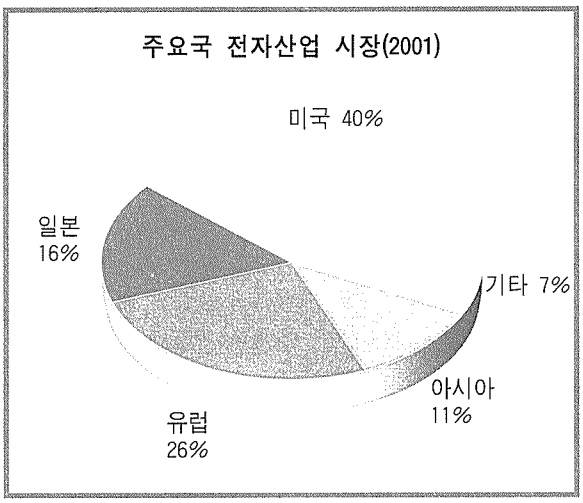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1년은 아주 열악한 한해였다.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자제품 수요가 격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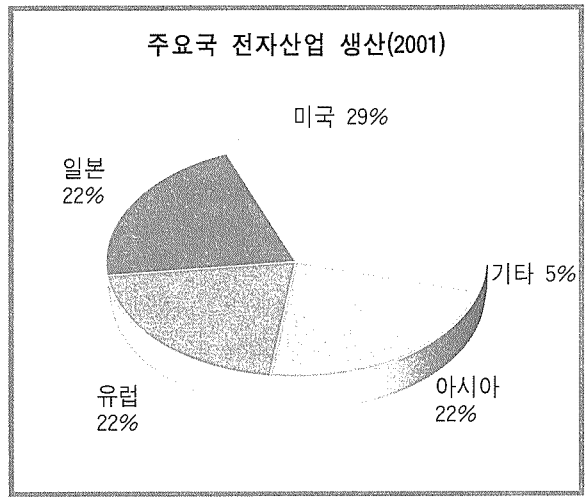
부품가격이 하락했고 많은 제조업체가 상당한 재고를 쌓아두게 되었다. 몇몇 주요 국가들의 잠정 생산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14% 감소하고 그 결과 시장은 12.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해 말까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은 911테러로 꺾였으며, 2002년 중반쯤까진 경기상승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전자 시장은 2002년에 1.8%로 미미한 성장을 보였지만 2003년과 2004년엔 약 6%로 가속화되다가 2005년엔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폭락이 있었던 한 해를 제외하면 1989년에서 1993년까지 5년간의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은 성장률이 5.4%였다.

그 이후 1994년에 7.6% 성장했고, 1995년에는 11.4%의 실질 성장세를 보였다. 1996년에 4.1%, 그리고 1997년에는 3.9%로 성장이 늦추어졌고 1998년에 1.8%로 하락한 후 1999년에는 6.3%성장으로 회복하였다.

1998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발간되는 연감에 기재된 모든 수치들은 1999년의 환율 및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으므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며 인플레이션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생산고 및 시장 거래 금액은 공장도 가격을 토대로 계산된 것으로서, 그 어떤 소매 세금 및 판매 이윤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감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1999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도에는 환율 변동과 화폐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을 가리키며 인플레이션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생산과 시장평가는 공장의 매출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소매업자들의 세금과 가격 인상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시장은 2000년에 10.9%까지 성장했다. 가장 빠른 성장을 한 분야는 28% 성장을 이룬 통신과 26% 성장한 휴대폰 부분이다. 비디오 장비 소비재는 비디오 레코더와 플레이어(DVD플레이어 포함), 비디오 카메라와 위성수신기의 높은 판매로 19%까지 증가했다. 부품은 20% 성장했지만 EDP는 2% 감소했다. 능동부품의 41% 감소와 수동부품의 25% 감소, 그리고 이동 통신과 전기통신의 20% 감소로 인해 시장은 2001년에 2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도 성장은 단지 1.6%로 예측되지만 그 이후 3년간의 평균 성장은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인 반도체 부분으로 인해 약 6%가 될 전망이다.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0년도에 13.3%까지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능동부품이 28%까지 성장했고, 무선통신 장비는 27%, EDP는 12%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소비재 시장은 1.5 % 성장을 기록하며 여전히 위축돼 있었다. 칼라 TV의 수는 1% 증가했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질 가치는 3% 하락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비재 부문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2001년 가을엔 하락세가 8.1%로 미국보다는 적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처럼 시장이 위축되었다. 능동부품은 EDP와 기계가 10% 하락하면서 총 15% 감소했다. 2002년의 성장은 1%로 예상되며 정해진 분석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약 6%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의 23% 시장 하락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999년에 21%까지 성장했고 2002년에는 한국이 33%, 태국이 36%의 성장을 이끌어 내며 이 지역 전체 경제가 23%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편 대만은 14% 그리고 홍콩은 8%의 성장에 그쳤다. 2000년에 전기통신시장은 49%, 컴퓨터시장은 34%까지 성장했다.

2001년에는 부품 시장이 23% 하락하고 전기통신시장이 14%의 그리고 컴퓨터 시장이 10% 하락을 보이며 이 지역 경기가 전체

적으로 8%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년간은 7%의 평균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의 나머지 시장은 이스라엘 32%, 브라질 20%, 캐나다 16%의 성장에 힘입어 2000년에 17.8%의 평균 성장을 기록했다. 부품과 컴퓨터는 대체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였다. 브라질 시장은 주로 환율 하락과 아르헨티나 경제의 붕괴로 인해 2001년에 대략 12% 감소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제휴관계에 있지만 이스라엘 시장은 군사비 지출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도는 2000년에 9%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2001년에는 대외 무역이 제한적이어서 4%로 둔화될 추세이다.

반도체는 이제 전자산업의 추진력이며 2000년에 전체시장의 18%를 차지했다. 반도체 시장은 2000년에 27.1% 성장으로 최고의 한 해를 구가했지만, 2001년에는 예상치가 27.2%로 하락하면서 급격히 쇠퇴했다. 2002년에는 시장이 하반기에 힘을 얻어 3.6%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에는 시장이 각각 16.1%와 16.5% 성장하고, 2005년에 12%의 성장을 보이면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장비와 부품생산은 1999년에 미화 1조 77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3.5%의 실질 성장을 이루어 1조 2,18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 미국은 생산이 8.8%까지 성장했으며, 일본은 9.3%,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22.0% 그리고 유럽은 14.5%까지 성장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 점유율은 20.4%에서 22.0%로 증가했다. 가장 빠른 성장 분야는 부품 분야로 평균가격이 급등하면서 19.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전기통신은 15.3%, 무선통신(휴대전화 포함)은 13.7%까지 성장했다.

2001년에는 생산이 미국의 경우 18%까지 하락했고 일본이 12%,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14% 하락했으며 유럽도 하락세는 가장 적지만 8% 하락세를 보였다. 2002년의 전체 생산은 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은 0.5%로 가장 저조한 성장을 보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3%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9년에 4권의 연감에서 소개되는 51개 국가들이 1억 6천 4백만대의 칼라TV를 생산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억8천만대, 이어 2001년에는 1억8천2백만대로 생산이 증가했다.

1999년에는 동유럽과 터키를 포함한 유럽에서 20%, 일본에서는 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4%, 미국에서는 7%, 중국에서는 25%, 멕시코에서는 15%가 생산되었다. 2001년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30% 상승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24%, 그리고 유럽이 1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아시아 · 태평양 전자산업 생산 현황 >

(단위 : 백만불)

국가	연도	EDP	사무용기기	제어&계측	의료&산업	무선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	가정용기기	전자부품	전자제품총계
호주	2000	930	32	523	140	698	698	219	301	3,540
	2001	958	33	549	147	740	712	218	298	3,653
	2002	977	33	588	158	784	733	223	310	3,806
브라질	2000	7,000	219	800	230	2,200	1,300	2,687	2,873	17,309
	2001	5,740	208	720	219	1,650	1,040	2,078	2,597	14,252
	2002	6,084	218	792	250	2,063	1,248	2,276	2,737	15,669
캐나다	2000	4,832	133	1,074	785	2,819	6,644	164	719	17,171
	2001	4,349	126	1,095	818	2,537	5,315	161	592	14,994
	2002	4,262	124	1,117	855	2,689	5,475	163	608	15,293
홍콩	2000	1,634	267	116	160	462	513	2,184	2,748	8,083
	2001	1,536	251	121	162	481	524	2,127	2,547	7,748
	2002	1,521	243	125	165	495	534	2,137	2,580	7,800
인도	2000	624	78	401	160	543	468	1,951	1,031	5,255
	2001	655	82	421	169	559	477	2,032	1,080	5,474
	2002	701	85	438	180	582	501	2,180	1,147	5,813
인도네시아	2000	3,300	58	120	160	632	450	2,361	3,710	10,791
	2001	2,640	55	110	168	569	428	2,135	3,015	9,120
	2002	2,772	56	114	176	597	449	2,242	3,337	9,743
이스라엘	2000	1,500	13	800	1,040	1,400	3,300	90	3,125	11,268
	2001	1,425	13	768	1,019	1,176	2,904	94	2,722	10,121
	2002	1,454	13	783	1,048	1,117	2,759	98	2,814	10,085
일본	2000	65,130	5,575	10,399	6,521	26,206	20,649	19,332	109,638	263,451
	2001	56,663	4,739	8,527	5,869	31,185	18,171	17,093	88,622	230,869
	2002	57,230	4,502	8,357	5,819	34,927	17,808	16,768	86,574	231,984
말레이시아	2000	17,368	163	500	161	1,632	2,053	7,158	15,505	44,539
	2001	15,458	138	425	144	1,305	1,642	6,839	12,172	38,123
	2002	15,922	135	404	150	1,371	1,609	6,943	12,682	39,216
필리핀	2000	2,900	41	60	47	650	400	534	7,061	11,693
	2001	2,755	42	57	49	598	376	507	5,733	10,117
	2002	2,893	43	58	51	616	384	499	5,825	10,368
싱가폴	2000	22,209	280	523	215	1,744	677	1,245	20,424	47,318
	2001	18,878	266	487	206	1,308	576	1,073	15,597	38,390
	2002	19,633	261	477	213	1,374	587	1,091	16,281	39,916
남아프리카	2000	173	6	86	84	166	360	177	51	1,103
	2001	178	6	93	87	171	367	182	50	1,134
	2002	187	6	103	93	179	375	188	53	1,184
한국	2000	15,241	414	390	407	14,401	2,677	5,237	37,292	76,059
	2001	12,193	393	332	377	12,961	2,409	4,732	33,996	67,393
	2002	12,437	385	338	402	13,609	2,482	4,788	35,421	69,861
대만	2000	26,767	17	154	253	962	2,173	1,101	18,767	50,193
	2001	23,555	16	131	251	817	1,847	957	15,070	42,644
	2002	24,026	16	128	257	834	1,810	952	15,676	43,699
태국	2000	8,229	219	150	82	748	1,147	2,332	5,972	18,880
	2001	6,584	208	127	76	599	975	1,961	4,612	15,141
	2002	6,715	214	131	79	628	1,034	2,048	4,747	15,597
미국	2000	90,613	4,762	41,123	18,876	66,504	57,257	6,391	99,619	385,145
	2001	75,209	4,286	40,301	19,524	56,528	42,943	5,873	70,302	314,965
	2002	74,457	4,243	41,107	19,914	57,659	42,513	5,990	73,007	318,890
총계	2000	268,451	12,277	57,219	29,320	121,766	100,767	53,163	328,837	971,799
	2001	228,775	10,862	54,264	29,284	113,183	80,706	48,059	259,004	824,139
	2002	231,269	10,578	55,059	29,811	119,523	80,300	48,586	263,798	838,925

< 아시아 · 태평양 전자산업 생산 현황 >

(단위 : 백만불)

국가	연도	EDP	사무용기기	제어&계측	의료&산업	무선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	가정용기기	전자부품	전자제품총계
호주	2000	4,785	206	1,017	329	2,017	1,465	1,479	1,730	13,029
	2001	5,025	208	1,037	341	2,138	1,494	1,528	1,703	13,475
	2002	5,276	211	1,068	357	2,245	1,539	1,587	1,759	14,042
브라질	2000	8,502	229	1,447	532	1,697	2,579	2,381	6,444	23,811
	2001	7,652	218	1,302	497	1,612	2,321	2,059	5,313	20,975
	2002	8,264	222	1,367	524	1,709	2,368	2,181	5,668	22,303
캐나다	2000	10,790	391	3,342	950	2,687	2,107	2,795	6,137	29,197
	2001	10,574	387	3,442	992	2,767	2,149	2,701	5,073	28,085
	2002	10,786	383	3,545	1,043	2,906	2,192	2,735	5,265	28,854
홍콩	2000	3,134	70	232	147	572	388	778	3,512	8,834
	2001	3,260	71	239	157	595	396	794	3,297	8,809
	2002	3,423	73	249	171	625	411	814	3,374	9,139
인도	2000	1,693	93	557	234	710	550	1,896	1,547	7,279
	2001	1,794	94	568	251	738	561	1,958	1,620	7,584
	2002	1,938	97	591	269	775	589	2,059	1,729	8,047
인도네시아	2000	485	54	297	229	596	435	859	2,310	5,265
	2001	509	55	309	240	626	444	902	2,002	5,087
	2002	550	58	327	254	663	457	959	2,185	5,454
이스라엘	2000	2,180	58	590	530	1,380	460	406	2,435	8,039
	2001	2,289	60	561	545	1,242	437	386	2,112	7,631
	2002	2,403	62	572	577	1,267	450	380	2,129	7,839
일본	2000	64,091	2,570	6,494	5,065	22,514	19,481	11,503	77,273	208,989
	2001	58,323	2,415	6,169	4,812	23,640	18,506	11,441	66,797	192,102
	2002	57,156	2,391	6,292	4,994	25,058	18,136	11,656	68,321	194,005
말레이시아	2000	1,271	56	1,245	242	626	421	525	12,015	16,401
	2001	1,335	55	1,183	251	595	387	509	9,741	14,054
	2002	1,401	54	1,159	260	607	380	525	10,140	14,525
필리핀	2000	700	36	227	70	590	480	353	1,991	4,447
	2001	665	37	222	72	572	470	323	1,802	4,163
	2002	685	37	227	76	589	480	321	1,841	4,256
싱가폴	2000	8,002	240	1,897	149	1,237	699	1,008	9,741	22,973
	2001	7,842	244	1,840	156	990	664	1,019	8,463	21,218
	2002	8,077	249	1,895	164	1,019	667	1,056	8,751	21,889
남아프리카	2000	1,153	148	303	138	937	980	390	434	4,482
	2001	1,199	151	309	142	983	999	382	394	4,559
	2002	1,259	156	318	148	1,042	1,019	392	416	4,751
한국	2000	7,281	228	2,334	665	8,331	4,543	2,317	15,529	41,228
	2001	6,917	233	2,101	671	7,914	4,770	2,243	13,487	38,335
	2002	7,055	228	2,143	717	8,310	4,913	2,210	14,137	39,713
대만	2000	3,822	89	2,014	305	1,955	813	665	15,647	25,310
	2001	3,746	86	1,913	311	1,916	829	634	12,982	22,417
	2002	3,858	85	1,817	324	1,954	846	646	13,419	22,950
태국	2000	3,441	86	571	155	1,147	723	589	4,786	11,498
	2001	3,269	87	543	159	1,090	687	582	4,049	10,467
	2002	3,400	90	559	164	1,133	701	596	4,178	10,821
미국	2000	130,831	5,920	33,917	17,185	74,195	63,405	32,579	114,225	472,257
	2001	111,206	5,328	30,525	16,705	59,356	50,724	26,273	73,903	374,020
	2002	112,318	5,221	31,136	17,039	59,950	51,231	26,798	76,310	380,004
총계	2000	252,161	10,473	56,482	26,925	121,190	99,528	60,522	275,757	903,039
	2001	225,604	9,730	52,262	26,302	106,774	85,840	53,733	212,737	772,981
	2002	227,850	9,617	53,265	27,081	109,852	86,390	54,916	219,622	788,593

Ⅱ. 국별 전자산업 동향

한 국

1. 현재상황과 중기전망

성장 둔화와 국내 대기업들의 재무상태 악화, 수출 하락, 긴축재정이 2000년 중반 이후의 경제 기조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1997-98의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 1999년 1월에서 2000년 7월까지 향유했던 18개월간의 급격한 경제회복과는 대조를 이룬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노력과 국내 수요의 회복으로 경기가 최근에 활기를 띨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불완전한 구조개혁과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포함한 악화되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하다.

실질 생산은 2001년에 1.8%에서 2002년에는 2.8%까지 확대되어 2003년엔 5.0%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2002년의 부진한 성장은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출 물량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비록 2002년 후반부에 미국과 일본의 수요가 많아져 수출 성장이 가속화되더라도 2001년의 수출 활동을 상회하는 선은 되지 못할 것이다. 양대 수출시장에서의 보다 빠른 성장은 2003년도의 수출이 9.6%까지 상승하게 할 것이다.

2. 정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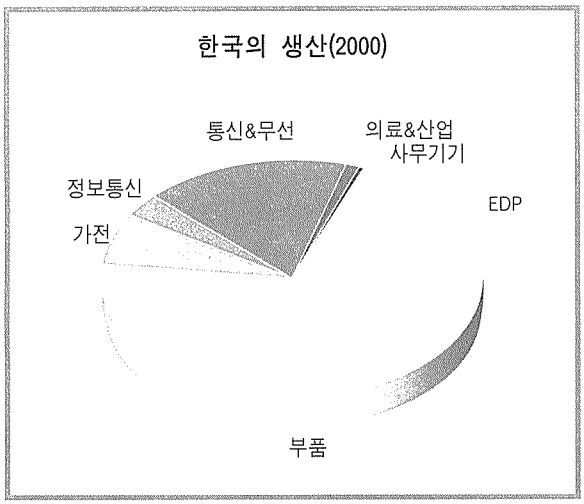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씨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2000년 4월에 열린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에게 통제력을 내주게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씨는 여전히 2002년말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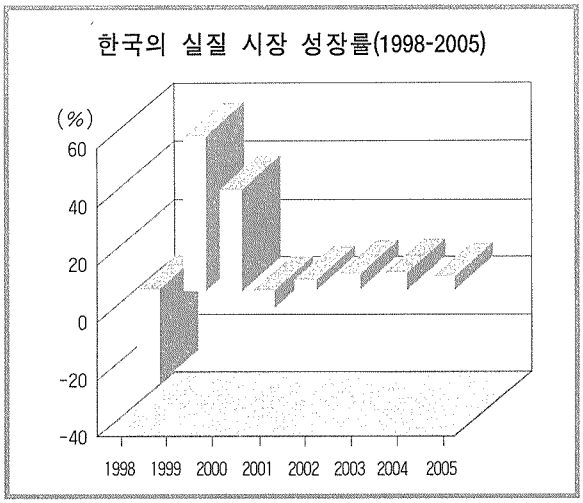
2000년 6월 평양에서의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후, 남북 상호간의 합의는 일련의 장관급과 당국자회의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 투자보증, 분쟁해결조치로까지 급속히 발전됐다. 남북간의 화해는 2001년에 활발치 못했으며 합의된 많은 안건들이 앞으로 이행되어져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지원에 힘을 얻어 추진력을 회복하고 있다.

3. 산업전망

제조업은 2000년의 한국 GDP 성장이 15.4%가 넘도록 이끌었는데 이는 1999년의 21.0% 증가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것이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30.7%에 비해 2000년도엔 34.2%로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 중에서 중공업과 화학은 2000년에 호황을 누리며 해를 거듭해 가며 18.5%의 성장을 기록했다. 전기통신과 전자제품, 산업 기계류는 30% 성장으로 시선을 끌었으며, 섬유와 신발, 식료품과 같은 경공업은 1999년(8.9%)과 2000년(2.8%)에 비교적 미미하게 성장했다.

건설은 계속적으로 하락해 1999년 가을에 9.1% 줄어든 데 이어 2000년에도 3.7% 감소하였다.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에서 생산된 양은 1999년에 5.4% 상승했지만 2001년 1/4분기에는 3.4% 줄어들었다.





새로 설립되는 기업들의 수가 1999년과 2000년에는 매달 증가하여 15개 이상의 금융업계에 의해 도산되는 기업의 수를 능가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3월에 새로 설립한 기업수가 3000개 이상인 반면, 부도를 선언한 기업의 수는 200개 미만이었다. 서구 경제에서는 기업 도산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많은 관측자들은 한국의 부도비율이 실제로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4. 전자산업

한국은 아시아 지역 금융 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던 국가들 중의 하나로 외환 보유고가 1998년에 1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외환위기의 극복이 전자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41%와 32%의 성장이라는 높은 경기 회복을 이루어냈다.

한국에서의 생산과 시장가치는 달러로 매겨진다.

환율인하로 인해 1997년 달러당 951원이던 것이 1998년에 1,401원, 2000년에는 1,131원이 되었고 이는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98년에는 원화 가치가 23% 상승하였으며, 1999년에는 19% 그리고 2000년에는 25% 상승하였다.

이러한 회복은 반도체 시장의 경기 향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많은 신화를 무색케 했던 1999년 말의 일련의 대변동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은 1999년에 28% 그리고 2000년에는 27% 상승했다.

산업은 1980년대에 급속히 성장했지만, 1990년대 초에는 1989부터 1992년 사이에 연평균이 5%에 그치며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3년엔 생산이 10%까지 늘어났고 이어 1994년에는 26%의 증가세를 보였다. 1995년에는 이례적으로 기록적인 36%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 후 1996년에는 성장률이 4%로 감소했고, 1997년에는 3%로 하락한 후 1998년에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산업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규모면에선 영국과 비슷하며, 미국과 일본, 독일보다는 작은 편이다.

1996년에 모두 7,941개 업체가 473,000명을 고용하여 국내 전자산업에 종사했다. 전자산업의 선도업체들 가운데에는 이른바 '빅 4'로 불리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 뿐만 아니라

100대 중소 전문업체와 300명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는 소기업들이 있다. 공장자동화와 생산시설의 해외 배치, 저조한 국내 매출 등 여러 영향으로 1997년에는 고용이 45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1998년의 위기는 고용이 13% 더 하락하여 394,000명에 이르렀고 기업의 수도 7,577개로 줄어들었다.

일반 소비재가 말레이지아와 태국, 베트남, 중국, 북한에서 점점 더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제품과 통신장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1996년에 컴퓨터제품 생산은 16%까지 증가했지만, 1997년도에 성장이 단 1%에 그쳤고 1998년에는 29%까지 떨어졌다. 1999년에는 97% 성장을 보이며 완전한 회복됐고 2000년에 152억 달러의 생산으로 39% 성장을 기록하였다.

통신과 전기통신장비는 1996년에 9%, 1997년에 24% 그리고 1998년에 27%까지 성장했다.

1999년에는 성장이 가속화되어 52%의 성장률을 보였고 2000년에도 48% 성장했다. 반면에 소비재 산업은 1996년에 7%, 1997년에 24% 그리고 1998년에는 43% 하락했다. 그러나 이 부문도 경기가 회복되어 1999년에 31%와 2000년에 16%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주로 VCR 생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칼라 TV 생산이 1996년도에 1,590만대를 생산하여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이후 그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2000년에 1,180만대를 생산한 칼라 TV의 주요 생산국이다.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일본의 엔화 강세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첨단기술제품 쪽으로 점차 방향을 돌려왔다. 생산 증가율은 주요 한국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해외 설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와 통화량의 갑작스럽고도 극적인 악화는 해외투자를 줄이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했다. 1995년에는 전자산업의 해외투자가 미화 11억900만 달러였고 1996년에는 10억100만 달러이던 것이 1997년에는 8억15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FDI(해외직접투자)는 해마다 증가해 왔지만 증가율은 2000년에 상당히 저조했다. 1997년에 FDI는 미화 70억 달러였으며, 1998년에 27%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76%가 증가했으나 2000년에는 157억 달러로 1%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전세계 DRAM 칩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를 비롯하여 100개가 넘는 반도체관련업체의 본국이었다. 반도체는 부품분야의 전체 가치의 72%를 차지했으며, 2000년에는 전체 전자제품 생산의 36%를 차지했다.

<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추정)		2002 (추정)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전자산업 계	76,059	41,228	67,393	38,335	69,861	39,713
산업용 소계	33,530	23,382	28,665	22,605	29,652	23,366
정보기기	15,241	7,281	12,193	6,917	12,437	7,055
사무기기	414	228	393	233	385	228
계측 및 제어기기	390	2,334	332	2,101	338	2,143
의료 및 산업전자	407	665	377	671	402	717
정보통신기기	17,078	12,874	15,370	12,683	16,090	13,223
가정용 소계	5,237	2,317	4,732	2,243	4,788	2,210
영상기기	3,697	1,451	3,327	1,378	3,394	1,351
TV	1,779	863	1,583	822	1,596	808
비디오레코더	1,235	348	1,106	315	1,122	293
비디오카메라 및 카메라콤비네이션	683	240	638	241	676	250
음향기기	1,173	637	1,056	624	1,035	612
카라디오 및 라디오 콤비네이션	522	296	466	294	454	291
라디오	5	6	4	6	4	6
라디오레코더/플레이어	302	134	275	133	272	132
레코더 및 플레이어	344	201	310	192	304	183
개인 가정용기기	367	229	349	240	359	248
전자부품 소계	37,292	15,529	33,996	13,487	35,421	14,137
능동부품	30,859	10,497	28,528	8,958	29,708	9,396
튜브	3,845	1,721	3,908	1,588	4,058	1,606
다이오드	192	401	180	330	190	340
트랜지스터	480	650	440	540	460	550
IC	26,342	7,725	24,000	6,500	25,000	6,900
수동부품	3,120	3,422	2,652	3,080	2,785	3,234
축전기	959	1,136	827	1,014	875	1,054
저항기	195	329	151	267	144	254
콘넥터	257	590	226	572	243	644
소형 트랜스포머 및 기타 인덕터	247	293	164	248	133	245
릴레이	66	163	52	149	50	159
스위치	71	64	54	51	50	48
PCB	1,325	847	1,179	777	1,287	830
기타 부품	3,313	1,610	2,816	1,449	2,929	1,507

일 본

1. 현재 상황과 중기 전망

1997년 중반이후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후퇴로 인해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됐다 이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에 확대 재정정책으로 국면을 전환하였고 일본은행은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렸다.

2000년 10월에 일본 정부는 11조 엔을 투자하는 경기 촉진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기를 떠받혀주긴 했지만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GDP는 2003년에 1.2%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2001년에 0.9%, 2002년에는 이를 상회하는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1-2002년의 GDP 감소는 주로 일본 수출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의 취약한 국내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기 후퇴는 다른 주요 아시아 시장, 특히 대만과 한국의 성장속도에 현저한 감속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은 2001년에 5.7% 감소하고, 2002년에는 2.8%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는 미국이나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5.6%의 수출 물량 증가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또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2년 여에 걸쳐 수출증대에 기여를 하였다

2. 정부 정책

2000년 6월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신공명당 및 신보수당 연립정부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전에 비해서 의석수가 많이 줄어든 정부였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주니찌로는 자민당 총재직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상이 되었다. 그는 일본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혼란을 감내하도록 했지만 그에 대한 지지율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고이즈미는 일본은행의 악성 부채청산을 포함한 경제개혁, 우편제도의 민영화, 수백에 이르는 정부소유 공사의 폐쇄 혹은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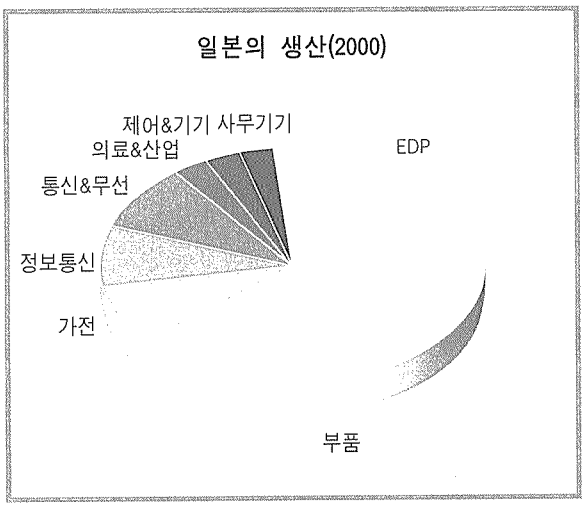
3. 산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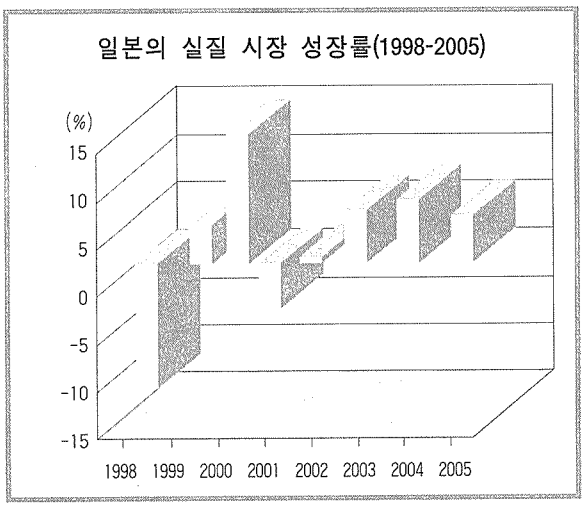
수출이 감소하면서 재고는 늘어나고 회사들은 생산을 줄이고 있다. 2001년도 3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에 비해 2.9%, 전월에 비해 2.1% 감소되었다. 1월~3월의 1분기 생산은 바로 앞의 분기에 비해 3.7%나 떨어졌으며 이는 7개 분기 중 처음으로 겪는 감소 현상이다. 일본 업체들의 구조 조정과 생산비 감축에 대한 절박한 요구는 강제 휴업이나 급료, 임금, 보너스의 삭감 형태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 개인소비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통적인 협력업체 관계를 재고해 보게 했고 새로운 구매자-공급자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였다.

제조업자들은 외국 공급 업자들로부터 고품질, 저비용 부품 자재를 구하려고 찾아 나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해외 공급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위치에 직면하지만 일본시장의 일정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4. 전자산업

2000년도 일본의 전자 산업은 엔화 기준으로 9.6% 성장이라는 호황을 누려왔다. 이는 1998년도의 엔화 기준 9.4%의 생산 하락과 1999년도의 사실상 등락의 변화가 없는 현상유지를 겪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00년에 16% 그리고 1999년에는 15% 성장했으나 1998년에는 16%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그 전년도인





1997년도에는 엔화의 약세로 7%의 성장을 이룩했지만 달러를 기준해서 보면 생산이 3.9% 감소한 것이었다. 엔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7년에는 전년도 대비 7.6%, 1996년에는 5.9% 그리고 1995년에는 5.1% 성장했다. 대외 무역 산업성(MITI)이 발표한 2001년의 10개월간 생산통계를 보면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컴퓨터 용품 시장은 1995년과 1996년에 주로 수입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1997년도에는 수입을 통한 성장의 속도가 떨어졌으나 엔화의 약세로 수출이 20%이상 증가하였고 생산은 9% 증가하였다. 1998년도에는 시장의 12% 위축되면서 생산이 11% 줄어들었다. 1999년도에는 생산이 6% 추가로 줄어들었으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들어 시장이 5% 성장했다. 2000년에 들어서도 엔화의 강세가 지속되어 수입이 계속 증가했고 생산은 성장이 2%에 그쳤지만 시장은 12% 성장세를 과시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휴대전화기와 그 밖의 이동통신장비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 그 결과로 이동통신장비 생산이 1995년에 32%, 1996년에 51% 증가되었다. 1997년도에는 휴대전화시장과 신규 가입자와 기지국의 증가 추세 둔화로 시장이 5% 위축되었다. 1998년에는 생산이 5% 떨어지고 시장이 8% 위축되었다. 1999년에는 생산이 4% 늘어나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2000년에는 성장이 급상승세로 돌아서 휴대전화기의 수요가 늘면서 시장과 생산 둘 다 22% 성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통신은 1998년도에 18%나 줄어들었고 1999년에나 2000년도에는 극히 미미하게 성장했다.

1985년에 소비재 생산은 전 생산의 23%에 달했으나 1993년에는 16%, 1994년에는 15%, 1995년에는 12%, 그리고 1996년에 11%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00년에는 7%로 떨어졌다. 1997년에 칼라 TV 생산의 증가로 소비재 산업의 퇴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듯했지만 1998년과 1999년에는 칼라 TV의 생산이 각각 17% 와 36% 급감하면서 소비재 산업이 1998년에는 4%, 1999년에 5% 감소되었다. 2000년에는 비디오 카메라와 TV 및 LCD TV와 같은 고부가가치 디지털 제품의 생산이 늘면서 감소 추세가 2%로 둔화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자산업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산업계에서는 가전제품이 아직도 주종을 이루고 있다.

넘쳐 나는 재고품과 가격하락은 1996년과 1997년에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분야에 타격을 가했다. 그러다가 1999년과 2000년에는 생산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반도체 산업이 회생하는 계기를 맞는다. 1999년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16%, 2000년에는 30% 성장하였으나 2001년에는 심각하게 급감했다. 1998년과 1999년도의 수상기 생산 저조하여 칼라 TV 브라운관의 생산도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9년과 2000년에 크게 성장한 부품 분야는 액정이었다. 전체적으로 부품생산은 1996년에 전년과 변함없는 보합상태를 유지하였으나 1997년에 미미한 성장이 있었고 1998년에는 9%의 하락이 이어졌고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9%, 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해외 생산시설의 확장은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999년 6월 현재 해외 생산시설은 1,233개소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3%가 줄어든 수치이다. 그 이전 2년간의 증가 수치는 4%와 7%이었다. 일본 전자산업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에 850개소, 북미에 210개소와 유럽에 142개소가 있었다.

1994년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690개의 생산시설은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기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외 생산시설에 고용된 종업원의 수는 1997년에 917,000명이었고 1998년에는 전년대비 13.6%가 증가한 982,000명이었으며 1999년에는 7.1% 증가했다. 1998년에는 일본 전자 산업에 고용된 인원 중 48%가 해외 종사자였다. (이 연감에서는 외국 소유의 생산시설에서 생산은 그 시설이 위치한 나라의 생산으로 잡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전자산업협회(EIAJ)와 JEIDA가 통합하여 일본전자정보기술협회(JEITA)로 발족하여 그 이후의 통계를 입수할 수 없다.

다수의 일본 회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생산기지를 NIC로 재조정하고 있다. 여러 회사들이 무역 제재를 피하고 기술발전과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의 기술집약회사, 특히 미국계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다수의 회사들이 일본 밖에다 공장과 부품 공급처를 설치하는 가운데 정작 일본 내의 몇몇 시설들은 가동을 멈추고 있다. 앞으로 일본 내에 있는 시설들은 아마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더 많이 이용될 것이며 기존 제품들은 해외에서 생산될 것이다.

심지어 경제가 호전되었을 때에도 가전제품과 다른 장비의 생산이 해외로 많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낮았다.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은 구조 조정의 기회를 찾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는 덜 치중하고, 수익성과 창의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제조업체들은 산업안팎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타 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기도 하며 공동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 일본의 전자산업 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추정)		2002 (추정)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전자산업 계	263,451	208,989	230,869	192,102	231,984	194,005
산업용 소계	134,481	120,213	125,154	113,864	128,642	114,028
정보기기	65,130	64,091	56,663	58,323	57,230	57,156
사무기기	5,575	2,570	4,739	2,415	4,502	2,391
계측 및 제어기기	10,399	6,494	8,527	6,169	8,357	6,292
의료 및 산업전자	6,521	5,065	5,869	4,812	5,819	4,994
정보통신기기	46,854	41,993	49,356	42,145	52,736	43,193
가정용 소계	19,332	11,503	17,093	11,441	16,768	11,656
영상기기	12,876	5,250	11,974	5,355	11,735	5,463
컬러 TV	2,718	3,256	2,442	3,302	2,309	3,347
LCD TV	482	436	488	449	519	463
비디오 레코더	965	473	838	468	767	464
비디오 디스플레이어	928	167	842	170	804	174
비디오 카메라 및 카메라콤비네이션	7,783	918	7,365	965	7,335	1,015
음향기기	4,944	4,852	3,758	4,755	3,645	4,850
라디오	56	130	36	126	30	127
카 라디오	56	65	31	47	22	36
카 스테레오	1,289	881	934	871	854	893
라디오 카세트 레코더	65	-	45	-	39	-
스테레오 시스템	612	844	425	817	372	820
CDP	2,226	2,523	1,854	2,551	1,951	2,677
헤드폰 플레이어	56	297	35	249	28	216
테이프데크	56	-	34	-	26	-
디지털 테이프 레코더	56	-	41	-	38	-
기타 레코더	186	-	143	-	139	-
튜너 및 증폭기	186	46	128	40	111	36
레코더 플레이어 및 테크	56	28	27	22	16	18
고성능 튜너	46	37	26	31	18	27
개인 가정용기기	1,512	1,401	1,361	1,331	1,388	1,344
전자부품 소계	109,638	77,273	88,622	66,797	86,574	68,321
능동부품	73,349	54,054	58,679	45,900	56,919	47,069
수동부품	27,013	16,243	22,151	14,619	21,708	14,911
기타부품	9,276	6,976	7,792	6,278	7,948	6,341

대 만

1. 현재 상황과 중기 전망

경기 침체 없이 아시아 지역이 겪고 있는 금융 위기를 극복하여 첨단 전자 제품에 대한 이 지역의 수요가 다시 늘고 있고 2000년에 세계 수요가 급증하는 호조 속에서 주요 전자 제품 생산국인 대만의 산업은 톡톡히 이득을 보는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실제 GDP는 1999년에 5.4%, 2000년에 6.0%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1년도에 들어서면서 특히 전자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산과 투자에 급격한 감퇴를 가져왔다. 빈약한 소비의욕과 무역 저조현상은 연말이 되어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가 2001년 3/4분기에 연간 4.2%의 위축을 가져왔고 9월 중에는 경제 주요지표가 월평균 0.9% 떨어졌다.

경제는 2002년 중반까지 회복이 시작되리라고 전망할 수 없다. 세계의 GDP와 무역 성장은 OECD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인 2003년에 가서야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전자제품과 반도체의 다음 상승 주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2. 정부 정책

2000년 3월의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대만을 이탈한 하나의 성(省)으로 보고 설령 전쟁이 필요 하더라도 궁극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베이징 정부와는 반대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천수이볜의 행정부는 부패일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정치개혁을 역설해 왔으며 환경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다. 2001년 2월 19일 대만 수상 장천슝은 대만의 국내 경제를 진작시키는데 목표를 둔 8개 조치를 천명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필연적으로 수출 주도형의 대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정부는 국내 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 조치는 1월의 국가경제발전회의에서 제기된 전략의 결과였다. 이 회의의 주요 결론은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3. 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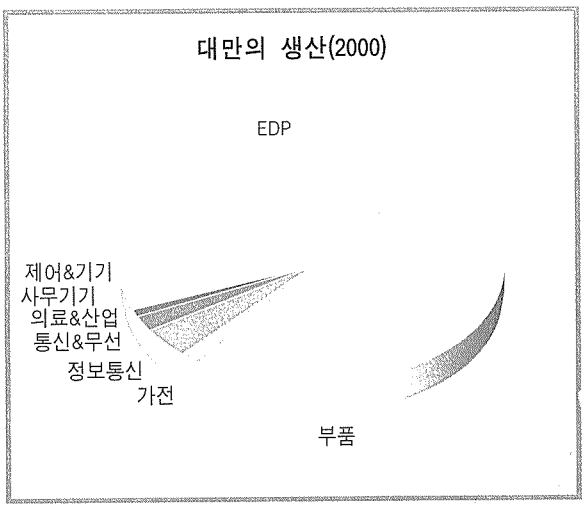
대만의 경제성장은 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추진된다. 1998년에 대만 수출이 10% 후퇴를 기록했으나 강력한 외국의 수요에 힘 입어 2000년도에 20%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수출 성장은 주로 반도체, 전자제품 및 정보 통신 산업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산업분야는 2000년도 총 수출 물량의 35%나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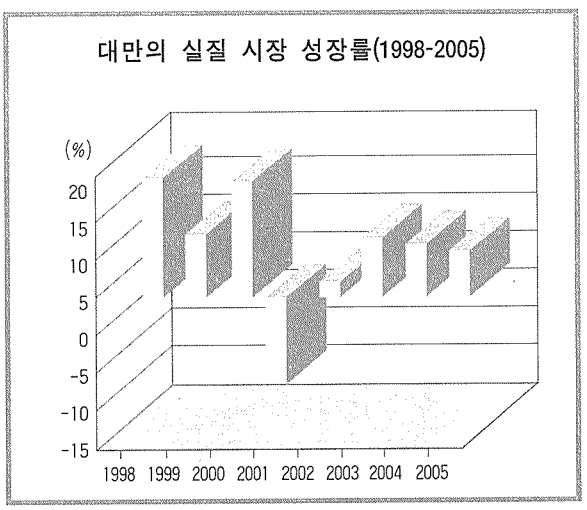
그러나 2000년 말 닷.컴의 거품이 빠지고 2001년 초 잇따른 미국의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대만의 해외 매출의 기세도 꺾여버렸다. 수출 수요의 꾸준한 감소와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어 2000년 말과 2001년 초에 대만의 국내수요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제조업 생산이 2000년 8.0% 성장하였으나 2001년 상반기 6개월동안 8.5% 떨어졌다. 다른 개발국가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공업분야가 계속 위축되었다. 이 분야가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에 35%, 1999년에 33%, 그리고 2000년에는 3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공업분야는 재빠른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탈피하여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전해 갔다.

전자와 정보 회사들이 지난 10년 간 대만의 제조업 분야의 중추로 부상하였다. 이들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의 20%미만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99년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였고 2000년에는 38%에 이르렀다.

4. 전자 산업

1997년도에는 전자 제품과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총





354,000명이었다.

전자제품 생산은 1999년과 2000년에 16%이상 성장하였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이며 1998년 대만의 산업생산이 6%이상 성장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경제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의 전망은 밝지 못하며 적어도 10%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 나라의 전자 산업의 주종은 컴퓨터 장비와 부품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2000년 총 생산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산업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5배로 확장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부품을 포함한 컴퓨터 제품생산은 1995년에 35%, 1996년에 20% 증가하다가 1997년에는 10%로 떨어졌으나 다시 가속화되어 1998년도에는 12%, 1999년도에 15% 그리고 2000년에는 12%로 증가하였다. 주 생산라인은 휴대용 컴퓨터로 1999년에는 38%, 2000년에는 19% 성장하여 이 분야 생산의 49%를 차지하였다. 모니터 생산은 1999년에 22%, 2000년에 15%가 줄었으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1999년에 280%나 성장하였고 2000년에는 이 추세가 둔화되어 23% 증가세를 보였다. 메인보드의 생산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컴퓨터 분야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 분야는 반도체로서 총 생산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통신 및 원거리 통신장비 생산은 역시 중요 분야로서 6%의 비율을 차지한다. 소비 제품의 생산은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며 1996년에 13%, 1997년에 7%, 그리고 1998년에 9% 생산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비디오 카메라와 위성 수신장치의 생산 증가로 소비제품의 생산이 8% 늘어났다. 2000년에는 이 두 가지 분야의 제품생산은 소비 제품 생산이 35% 성장을 보이며 괄목할 만하게 빨리 성장하였다.

대만은 세계 최대의 노트북 생산공급 국가의 하나로서 1997년에 460만대를 생산했고 2000년에는 1260만대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대만은 세계 최대의 메인보드, 마우스, 스캐너, 모니터와 키보드 생산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대만에는 중소기업이 전자 전기 공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84%의 기업이 4,000만 NT$(미화 150만불)미만의 등록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105명이다. 4,300업체가운데 4,120업소가 대만인 소유이며 70개 업체는 대만-일본의 합작이고 38개 업소는 순수 일본 회사이며 25개 업소가 순수 미국인의

회사이고 18개 업소는 대만-미국 합작회사이며 나머지 29개 업소는 기타 다른 투자자들의 업체이다. 전자제품은 수년간 대만의 수출주도 상품으로 주요 시장은 미국, 홍콩, 유럽과 일본이다.

정부는 전자제품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제품구성 부품,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공업용 전자제품, 테스트용 장비 및 소비자 전자제품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전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대만의 전자산업 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추정)		2002 (추정)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생 산	시 장
전자산업 계	50,193	25,310	42,644	22,417	43,699	22,950
산업용 소계	30,325	8,998	26,617	8,801	27,071	8,885
정보기기	26,767	3,822	23,555	3,746	24,026	3,858
사무기기	17	89	16	86	16	85
계측 및 제어기기	154	2,014	131	1,913	128	1,817
의료 및 산업전자	253	305	251	311	257	324
정보통신기기	3,134	2,768	2,664	2,745	2,644	2,800
가정용 소계	1,101	665	957	634	952	646
영상기기	688	345	585	328	573	334
TV	321	205	261	197	244	204
비디오 레코더	36	73	27	65	23	63
비디오 카메라	192	49	161	47	154	48
위성수신기	139	18	136	19	153	20
음향기기	353	260	317	247	324	252
라디오	31	-	28	-	28	-
레코더 플레이어	51	-	40	-	36	-
카세트 데크	21	-	16	-	14	-
라디오 카세트 레코더	166	-	155	-	164	-
기타 오디오	83	-	78	-	82	-
개인 가정용기기	60	60	54	59	55	60
전자부품 소계	18,767	15,647	15,070	12,982	15,676	13,419
능동부품	11,037	11,913	8,353	9,583	8,756	9,952
수동부품	6,257	2,980	5,318	2,682	5,478	2,735
기타부품	1,473	755	1,399	717	1,441	731